

인터뷰 權五榮 (북야공파, 35세, 울산종친회장)

仁.義.禮.智.信으로 忠孝를 선양하자!



용산소재 ‘바른선거시민연대’ 중앙회 사무실 뒤편 열기가 확 몰아치는 열전에 울산에서 새벽부터 올라 오신 내분을 만났다. 권오영 (1945년생, 북야공파35세)족친, 수더분하고 솔직한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로 武人의 품모이다. 일찍이 교육자로서 젊음을 바치고 특히 체육분야에 일가견이 있다는 말씀이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건강관리도요. 貴도 많이 타신거 같은데요.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나름 실제 교사 시절 꼭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한번 실현해보자~ 이런 심정이지요. 교사는 남해의 초등학교부터 김해의 중학들을 거쳐서 울산고에서 33년을 보냈지요. -가진게 조금 있어서 내대로 봉사한다고 여기 저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지요. 해병장교 출신으로 자부심도 있고 해서요. 학교동기회장, 재향군인회, 봉사회, 범죄예방위원회 등에 이름을 걸고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중 인내전바위 100주년 기념사업은

그 중 보람된 기억으로 남아있고, 당장 우리 권씨울산종친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건강은 뭐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나 몰라도 나이에 비해 10년 정도는 어리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새로운 꿈도 꾸려고 하고 있지요. -貴은 뭐 홍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범무부장관표창, 울산시장표창 까지 고루 받고 있는 거 같네요. 솔직히 상이라는건 받으면 기분 좋지만 또 안줘도 그만이고 그렇지요. 하- 특히 관심 가지시는 교육 분야는 무엇인지요? - 학교폭력문제입니다. 인성교육이 필요하지요. 폭력은 비교육의 지표이며 청소년 시절엔 특히 트라우마로 남아 피해자도 문제이지만 가해자가 더 문제입니다. 가해자는 또 다른 범죄자가 되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는 긴 세월을 피해의식속에 살아 갈 수있습니다. - 최근에 ‘인성법’이 통과 되긴 했으나 그 실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孝’를 빼자고 하지를 않나, 문제입니다. - 폭력은 불공정의 시발이고 결국 사회발전의 저해 요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움터는 사랑과 희망이 넘쳐야 하고 늘 설레는 마음으로 젊음이 꿈을 키우는 터전에 독버섯같은 ‘폭력’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교육관’에 대해 정리된걸 드러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회장님은 그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새로운 교육관을 담은 책자 <권 5.0 이 가는 길>을 집필 중이려나서요. -아 그 뭐 나름 교육감에 대한 미련도 있고

그 나름 정리할 겸해서 쓰고 있어요. 우선 그 개요가 마침 완성되었으니 그걸로 저의 교육자로서 가치관을 대신할까 합니다. -제목은 IT시대에 맞게 5.0 (오점영) 버전으로 집짓 달아 봤고, 앞에는 살아 온길을 회고조로 조금 소개하고, 뒤에 앞으로의 계획을 실었어요. -아 뭐 살날이 너무 적다 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3번의 변화가 온 세상이었다면 앞으로 물리적으로는 그 반도 안되는 시간이지만 변화는 6번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핸드폰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불과 20여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요. 권오영의 교육관 1. 4차산업의 개벽시대에 발맞추자! -인공지능 AI의 발전은 집단지성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각급의 광화문광장에 촉발된 ‘촛불의 힘’도 그와 같다. 이제 정보의 절대 평준화, 작동기재의 저렴화, 인지의 평등성으로 인한 변혁은 동학 등 민주주제적 종교관이 말하는 ‘후천개벽’에 다름 아니다. -4차 산업은 결국 인간의 인간성의 극대화으로 AI를 주도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인간은 거대한 MATRIX에 파묻힌 노예로 화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인간성의 개발이야말로 이에 대한 솔루션이라는 것이다. -교육은 이제 다종의 분석을 통한 로직의 이해로서만이 인간성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경험법칙적 변수에 의한 원칙 확립과 추진만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2.교육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별개의 사안이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윤락하게 하기 위한 보호 작용의 기초’이며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시발점’이다. 물론 정당의 색깔에 따라 그 시행 방법이나 방향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정치적 변수는 적다고 본다.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휘둘린다면 이는 교육의 근본인 ‘민본’, ‘복지’, ‘평등’의 법칙에 어긋나고 부당한 정치 진영 논리에 지배 당하여 결국 그 본을 망각하고 末에 집착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정당표시가 없으나 실제

대담자 : 사무총장 권오운

하는 것은 부인 할 수가 없으나, 정당 보다 그 개인의 ‘觀’에 따라 제시한 ‘정책’과 ‘시행방법’에 의해 판단되고 선출되어야 함은 물론 실행은 모두 교육관련자(감독자,시행자,수혜자,보호자등)의 동등일체로 행한다. 3.교사는 학생의 멘토요, 마니또 여야 한다. -교사는 以身作則(모범으로 법칙을 만듦)의 인격자로서 배우는 사람의 닮고자 하는 ‘모델’인 동시에 ‘바니또(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하에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수준에서 이미 벗어나고 있으며, 이는 SNS의 발달로 암기식 주입식 교육과 평가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된 것이라는 것이니, 이는 랜덤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사는 스승인 동시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종래에는 피교육자와 동반자적, 동지적, 동업자적인 인식을 가져야 만이 진정한 교육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공급자와 수요자로서 동등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지역사회(울산)는 스승이다. 군인은 전술 훈련 보다 내무반(생활관)에서 만들어 진다! -천.지.인의 삼요소에 의해 천지만물이 운행하듯이 교육의 바탕에는 지역사회라는 무대가 자연환경은 물론 사회적인 특성에 의해 교육의 바탕이 되어 교사와 학생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아주 60년대에 모 도시의 교육청이 내건 플래카드에 ‘지역사회는 스승이다.’라는 구호가 있었으니 이는 일견 유치한 내용 같지만 매우 의미심장하고 필요 불가결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그 비유로 신병이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 때 그 병사로서의 제식훈련이나, 총검술등도 중요하지만 거의 푸른 제복을 입고 상명하복을 실감하며 동료애로 교유는 장소인 내무반 생활에서 군인으로 양성되어지는 것이다. 5.선현(도산 안창호 선생등)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며걸으며 그를 본으로 삼자! -인간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더 사고의 영역을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이것은 기존의 고정된 사고의 틀 아래서 한정된

부정공과 현덕왕후 권씨의恨 많은 이야기 <3>



관정지 (관우물지)



단종표지

자고로 權은 권력이 아니다 衡이다. 저울의 ‘추(鍾)’이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와야 한다는 것이다. 시계 불알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게 권도(權道)가 아니다. 근자에 權權을 더럽히는 것도 이런 아전 계급의 후예들이 일괄한 권력에 아부하여 자그만 私慾을 찾아 헤매는 무리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세조가 현덕왕후 묘를 파헤쳐 시신을 버리니 그 관이 머문 곳에서 우물이 생겨났다는 전설. 안산시 복내동 472-1번지 ‘일진전기’ 내에 위치하고 있다. 아이러니는 그 다음 스토리이니 그 현덕왕후의 손 아래 동서 정희왕후 윤씨(수양대군 세조의 부인)는 나름 改心(꿈에 현덕왕후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하여 만이들 의경세자(성종의 아버지) 죽고, 둘째 예종도 2년 만에 죽고, 공신 한명회의 딸도 예종비이지만 죽고 그래서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4세)은 너무 어려서(제안대군의 스토리도 엄청나다. 丙侍도 아니면서 여자 문제엔 ‘제로’인 인물) 배제하고 며느리 인수대비(월산대군, 성종의 어머니)와 함께 ‘성종’을 옹립하고 20세까지 잘 보호 한 것은 그 ‘단종’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한 몸부림이고 성공한 수렴청정이었다. 조선을 율법의 국가로 만드는 기초가 되기도 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또 아사이기는 하지만 세희공주(수양의 장녀)와 김중서의 손자(막내 아들?)의 결혼 스토리는 진정한 해원이 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민중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하겠다. 현덕왕후의 지문을 다시 읽으며 지난 날 신산한 권문이 낳은 왕후의 비극을 되뇌이고 차후 교훈으로 삼고저한다. <정리: 권경민>

환경안에서 생각이 굳어 질 수 밖에 없는 유한 존재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함축적으로 발전하여 온 것은 이미 선형이 닦아 놓은 길을 쉽고 빠르게 전수 받고 유한한 삶에 있어 독자적인 진보를 더하여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인간 지혜의 특징인 것이다. - 위인들은 많지만, 특히 현대 인물 중에서 본받기에 적당한 인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니 이는 인격적으로나 활동적으로나 무실,영행,충의용감의 정신과 大公主義와 愛己愛他의 실천은 분열된 현세에 귀감인 것이다. 6.전통사상은 검증된 인간의 길이다. 원시반본의 길만이 살길이다! 7.교육은 그 자체로서 만족이니 평생교육 인격형양, 일일일기로 실사구시 자립자생하자! 8.노인은 교육의 최대 자산이다. 그 피드백의 효용성은 시를 능가하지 못한다! 9.미래의 자산은 아이, 청년이니, 청년과의 소통, 자식을 이겨서는 안되는 부모가 되자! 10. 일만년 역사의 코리아의 정신의 정화 민본,평등,大公主義 정신을 구현하는東學을 살리자! <정리 권오철 기자>

7명의 경력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성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CJLAW

공증인간
법무법인 청주로
CHEONGJU LAW

대표변호사 권태호

- 안동권씨 추밀공파 33세손
- 안동권씨 대종원 부총재(현)
- 안동권씨 충청북도 종친회장(현)
- 춘천지검장/대전고검차장검사
- 청주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
- 서울동부/부산/광주지검 부장검사
- 서울/대구/부산/광주지검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검사
- 안산(초대)/충주지정장

구성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박종일
대표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제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산남동657) 엔젤변호사빌딩 7F(산법원 정문앞 네거리)

TEL. 043-290-4000(대표전화) FAX.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 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공증/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SMU

세명100년의
대강령을 향한
도전과 혁신!

KD 운송그룹

경기고속 대원고속 대원여객 대원관광 대원교통 진명여객 경기버스 경기운수 경기상운 대원대학교
대원운수 대원버스 평안운수 경기여객 영진여객 세명고등학교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성회여자고등학교

- 교육부 학부교육혁신사업(신도대학) '일기'프로젝트 '대학' 선정 [2016~2019년]
-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OK) 선정 [2018~2019년]
-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대학 선정 [2016~2019년]
- 한국대학교육평가원 시행 '대학가치평가인증' 획득 [2014~2019년]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시행 '간호교육평가인증' 획득 [2014~2019년]
- 한국언론진흥재단 시행 '언론교육평가인증' 획득 [2016~2019년]

SMU 세명대학교 주소 : (27136)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입학문의 : 입학관리처 ☎ 043-649-1170~5, 1179 홈페이지 : www.semyung.ac.kr